

디지털한 이야기

자본재과 공업연구관 박정우

02)509-7272 phark@ats.go.kr

♣ 이야기 1...

1000억여원의 당첨금이 예상되는 로또복권 판매 마지막 날인 어제 저녁, 대박을 좇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동네 복권방에 장사진을 치고 있더라며 우리과 꽃미남 총각 O형이 너스레를 떨었다. 마흔 다섯 개의 숫자 중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여섯 개를 맞출 확률은 800만분의 1이 채 안된다지만 일년 봉급의 삼천분의 일 정도 되는 거금을 투자해서 나만의 대박을 만들어 본다.

‘제주도 똥돼지랑 외형제 맺는 설날 밤 꿈이 예사롭지가 않아. 당첨만 되면 우선 중국에 이민신청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중국 조선족을 한 사람 구해서 나랑 얼굴을 바꿔치기 해야지. 성형수술은 중국에서 해야겠지. 조선족이 은행에 가서 당첨금을 수령하면 10억쯤 쥐어주고 내 여권으로 출국 수속을 해서 중국으로 돌려보낸 다음에 그 사람은 다시 다른 사람 얼굴로 성형수술을 시켜서 인간 닮고 땅덩어리 넓은 중국에서 살도록 하는 거야. 그때쯤이면 나도 어눌한 조선족 사투리에 많이 익숙해져 있겠지? 인터넷 통신대

란을 겪은 지도 얼마 안됐는데 복권 서버가 해킹당해서 자료가 몽창 날라가고 매맞춰서 기가 막히게 위조된 가짜 복권이 수천만장 나타나서 한 장에 만원씩 환불해달라고 소란피우고(한장에 만원씩 수천만장이면 수천억원인데...) 아이구 정신 없어라.’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O형의 퇴근인사 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렸다.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는 직원들끼리의 몇마디 수군거림이 영 깨름칙하다. ‘어젯밤 돼지를 썬고 자는 꿈을 꿨는데 말야... (어찌구 저찌구...)’

‘그래, 당신 돼지가 복돼진가 내 돼지가 복돼진가 어디 째 두고 보자!’

♣ 이야기 2...

오랜만에 술자리를 같이 한 Y형이 한마디 한다. ‘요즘 생체인식기술을 공부하고 있는데, 인간의 외형적 특성이 속속들이 파헤쳐 지고 자료화 되서 인간이 기계의 감시를 받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 본성의 디지털화 사례가 어디 그 뿐이랴.

Realian Movement라는 유사 종교단체의 자회사인 클로네이드에서 인간을 복제했다는 발표는 이제 인간이 생산되는 단계에 까지 이른 것처럼 보여진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간복제 시도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년간 동물 복제에 대해서 연구한 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복제된 동물은 신체장기의 크기와 숫자가 비정상 적이거나 암 발생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한다. '생물은 살아 남기 위해 항상 경쟁을 하고, 자연(신)은 그 중에서 가장 환경에 적합한 개체만 선택함으로써 멸종과 진화가 거듭된다'는 것은 누구의 이론이던가. 인간복제를 발표한 클로네이드에서는 인공착상에 의한 임신 성공률을 90%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23쌍의 염색체가 서로 결합하는 800만 가지의 조합 중에서 현재 환경에 적합한 염색체 조합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수초 내에 DNA를 분석해 내는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더욱 명백해진다.

외형적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클로네이드가 연구방향을 선회해서 인간의 심성을 복제하려고 하면 어찌될까? 사실여부의 검증이 곤란한 인터넷에 헛소문이나 험담, 괴변의 글을 올리는 익명의 네티즌,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멀쩡한 사람을 비보로 만드는 입담꾼, 인터넷이나 폰뱅킹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남의 돈 가로채는 해커,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는 화성 연쇄 살인범... 제발 이런 사람들은 복제할 꿈도 꾸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디지털하지 않은 이야기...

2001년 말, 한해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H부장님의 업무지시가 있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기술인증과 각종 기술개발 지원업무들을 묶어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업무로 다듬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LABOON PLAN은 기획되었다. LABOON PLAN은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기술개발자 지원 사업이다. 개발실(Laboratory)에서 대기 중인 기술을 발굴해서 핵심기술을 분석하고, 기술수준을 비교평가하고, 신기술로 인증하고, 국내외 전시회에 출품하고, 규제제정과 자금지원을 추진하고, 특별히 우수한 경우에는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하여 궁극적으로는 수출(Containership)사업화에 성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작년 한 해 동안 114개 신기술을 발굴해서 71개 기술은 신기술로 인증하고, 그 중 사업화 실적이 우수한 15품목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하였으며, 기술개발 유공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10명에게 수여하였다. 이러한 실적은 사업을 개발한 H부장님, 업무 진행사항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긴 L과장님 그리고 개별기술들의 사업화 추진을 열심히 지원한 각 부서 담당자들의 노력의 결과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맘 졸인 분들이 이렇듯 따로 있는데 별로 한 일도 없이 올해의 연구관으로 선정된 것이 너무나 부끄러울 뿐이다.

**신개발기술의 일등상품화
(LABCON Plan) 발굴 지원**

*"From Laboratory To Containership
연구실 기술을 수출 상품으로"*

□ 개요

- 수출 유망 신기술을 발굴하여 기술력 평가 향상 사업을 통하여 조기에 수입대체 및 수출주력상품으로 육성.
- 2005년까지 400개(매년 100여개)를 선정·기술력 평가 후, 매년 25개씩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 추진.
- 발굴대상 분야
- 기계류·핵심부품·소재로서 신기술 개발 완료 후 실용화 단계에 있는 품목으로서 기술자체가 세계수준급으로 *Global Sourcing*이 가능한 품목 등

□ 추진실적

- 신청기술 접수 : DVD Test CD 개발(삼성전기) 등 359건
- 지원대상기술 선정 : 114개 기술
- 전문위원회의 추천 및 간부 현장방문과 연계, 신기술 인증(NT) 업체로서 급격한 수출신장이 예상되는 기술
- 기타 기술지원, 품질인증, 자금지원 연계 등을 통하여 향후에 실용화가 가능한 107개 기술을 선정.

□ 향후 추진계획

- 지원대상을 신기술 실용화 분야 및 수입대체·수출촉진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
- 적합한 개발기술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정단계의 체계화
- 다양화한 지원대책 강구로 실효성 제고
- 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 유명인증 획득의 지원
- 자금지원 등을 통한 수입대체 전략품목 육성

